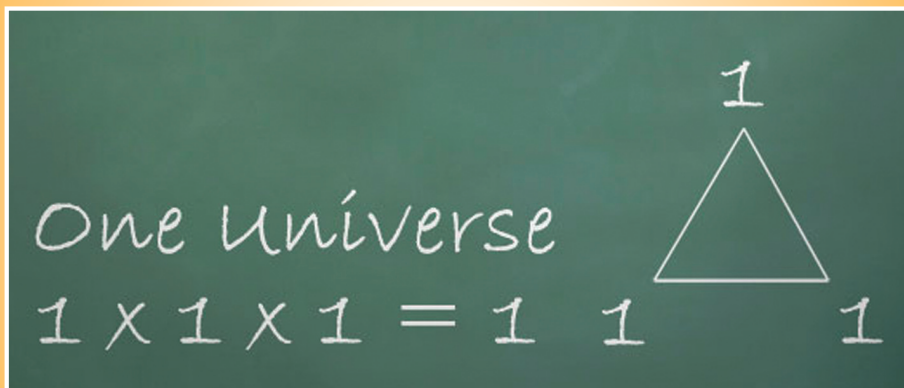




## 창세기 1장(1)

### 1장을 시작하며

“과학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던데요?”

“과학자들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 보면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서 결국 창조자를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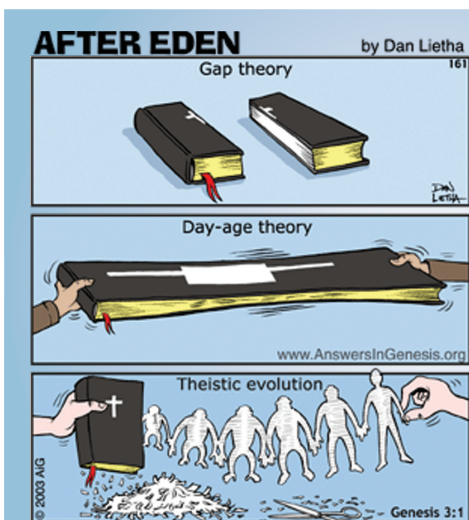
과연 과학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창조자를 만나게 될까? 우주의 방대함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며 어떤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창조자가 진짜 하나님일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거의 불가능’이라기 보다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 맞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상상하는 하나님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없었다면 조금 전에 엮질러진 물도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데, 이 엄청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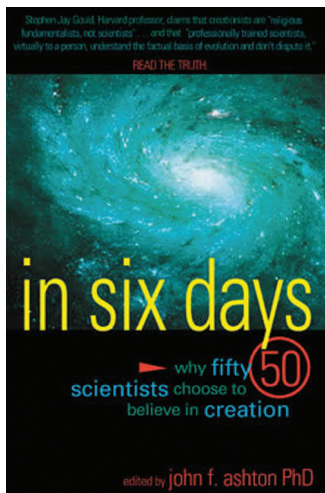
주와 생명이 언제, 어떻게, 왜 창조됐는지를 스스로 안다는 것은 가능할 리 없다. 그러므로 설계자가 있다고 인정할지라도 자신의 제한적인 사고로 창조의 원인과 과정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으면 말할지라”(욥 38:4)는 하나님의 질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진짜 창조자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타락 이전을 경험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첫 부부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물어 볼 대상도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타락 후 단지 가시담불과 영경위가 났던 상황만이 아니다. 그때와는 너무도 멀리 벗어나 있다. 타락 이후 죄악이 가득 찼기에 전 인류를 쓸어버린 홍수 심판이 있었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 언어도 서로 통하지 않게 되어버린 보시기에 좋았던 처음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버렸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2장은 3장에 기록된 타락 이전의 좋았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 할 수 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사 59:2)와 같이 오직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즉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수 있었을 테니 말이다. 또한 죄의 대가인 사망이 오지 않았을 테니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첫 사람 아담에게 직접 물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교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도 교활합니다.



과학자 50인의 6일 창조를 믿는 이유들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처음의 좋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과 아담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었을 세상은 그 좋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3장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그 후에 일어난 일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책도 없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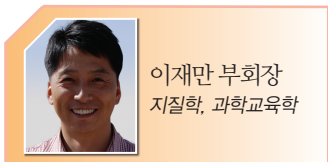
그러므로 이 창세기 1-2 장은 참으로 보석 같은 기록이 아닐 수 없다. 타락 이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고 싶었던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창조과정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모습은 첫 사람의 타락 이후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첫 부부의 타락 이후에 발생한 가인의 첫 살인, 홍수 심

판, 바벨탑의 언어의 혼돈과 흩어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조치를 이해하는데 결정적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생애 동안 하신 말씀,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복음 전파로써 선교와 전도,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에서 언급한 모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창세기 1-2장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만약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어지는 나머지 내용이 제대로 끼워질 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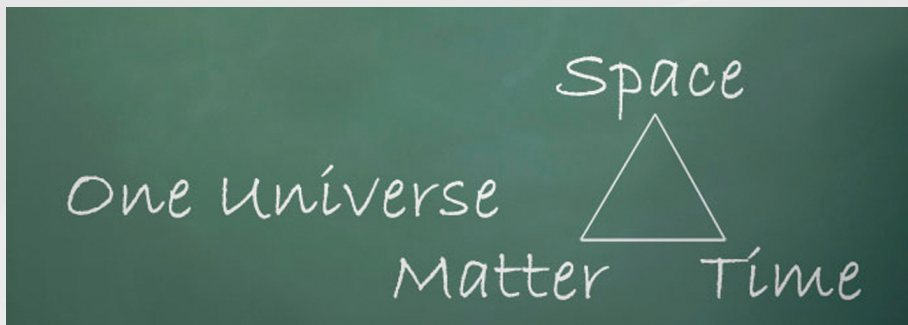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이 기록된 책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계시하셨을 리가 없다. 자신의 능력, 지혜, 지식, 성품, 계획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어 인간으로 되었다는 진화론이 등장한 이래로 가장 공격 받았던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창세기 1장이다. 창세기 1장은 신학교와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화 역사를 사실로 놓고 창세기 1장을 바꾸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은 그래도 성경의 뒷부분만은 믿어보려는 자구책이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진화 역사를 선택한 것이 되었기에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달까지는 창세기와 복음에 대하여 다루었다. 앞으로 창세기 1장 자체를 다루며 타락 이전의 모습을 엿보려고 한다. 창세기 1장을 통해 자신에게 묻어있는 진화론적 사고를 확인하고, 또 그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죄 짓기 이전의 모습을 그리며, 예수님의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란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구절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첫 행위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 태초(beginning)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하늘(heaven)이라는 공간과 첫 번째 물질로 지구(earth)가 창조된 것이다. 이 시간-공간-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신 것이다. 과학자들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시공간 속에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한다. 시간-공간-물질 이 세 가지를 항상 동시에 표현하며, 이는 이 세 가지를 각각 구분해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 1절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은가?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휴가를 다녀오면서 ‘다시 집에 돌아왔구나’라고 말을 했다고 하자. 그러나 따져보면 이는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갔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했기 때문에 공간도 이미 바뀌었다. 또한 그 사이 공기도 바뀌었고 집도 부식되었고... 결국 물질도 이전과는 다르다. 돌아왔다고 보다 여전히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자들도 시공간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고 항상 같이 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매시간 매초마다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여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를 거부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와 같이 인생과 역사는 단 하나며 원(圓)이 아닌 돌이킬 수 없는 직선이다. 그리고 성경은 1절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 길을 이 창조주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 갈 것인가 묻는다. 이 분만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인가? 그렇다. 이 창조자 외에는 어떤 자도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시간을 초월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을 초월한 분임에 틀림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부른다. 즉 시간도 피조물이다. 그런 면에서 바울 사도가 피조물들을 나열하며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



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꿀을 수 없느니라”(롬 8:36)라고 기록한 것은 시간도 피조물이며 우리를 향한 시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분의 전능하신 사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공간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 공간 역시 아무도 초월해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공간의 창조자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에 틀림 없으며, 그 분을 무소부재 하신 분이라고 부른다.

공간이란 과학자에게 참으로 어려운 연구의 대상이다. 우리 몸에서 공간을 모두 제외시킨다면 그 부피가 어느 정도일까? 바늘 끝 안에 다 들어가고도 남을 것이다. 우리 몸은 분자로 되어있고 분자는 원자로 되어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 원자는 핵과 전자로 되어있는데, 이 둘은 부피를 거의 차지하지 않고 99.9999...는 공간이 차지한다. 즉 몸의 거의 전부는 공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몸뿐 아니라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되어있으므로 이들도 대부분은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런데 몸도 공간, 벽도 공간이므로 서로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딪히면 머리에 혹이 나버린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과 무엇이 부딪힌 것일까? 엄밀히 말하자면 물질과 물질이 아니라 공간의 힘과 공간의 힘이 부딪힌 것이다. 분자와 분자, 핵과 전자, 핵 속의 소립자와 미립자들 사이에서 서로 당기는 공간에 존재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을 분리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단지 핵과 전자뿐 아니라 모든 물질들은 만유인력이라는 서로 당기는 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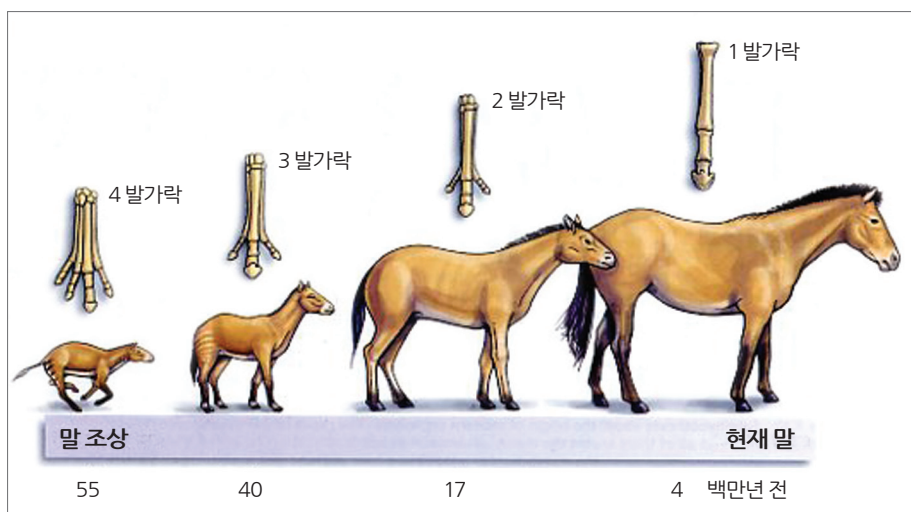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셨다.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정말 놀라운 질문 아닌가? 이미 처음부터 공간 안에 서로 달라 붙게 하는 성질을 넣었다는 말씀이다. 만약 인력이란 것을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선 바로 그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 물질이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 역시 알 길이 없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물질이지 않은가? 우리는 한 시도 물질을 초월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시간-공간-물질을 그것도 동시에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한 분이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에 틀림없다. 창세기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바로 그 창조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창조자가 우리의 구원자일까? 그렇다. 과연 이분 이외에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 창조자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요구한다. 전능한 분 외에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각 개인의 삶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역사는 단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은 이때부터 겪게 되는 시간-공간-물질 속의 그 유일한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역사란 거짓말 할 줄 모르는 분, 할 필요도 없는 분(벧전 2:22), 그리고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뿐인 역 이어지는 글은 13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말 대신 낙타

“꿩 대신 닭”이란 속담이 있다. 꿩 고기가 들어가야 알 요리인데 꿩이 없어 꿩 고기 대신에 닭 고기를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럴 경우 당연히 그 요리는 질과 격이 떨어지게 된다. “꿩 대신 닭” 현상은 교과서의 진화론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진화의 예로 교과서에 실려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가끔은 사라진 것 대신에 다른 예들로 대치 시키고 있다. 물론 그 새로운 예는 예전 것보다 좋아서가 아니다. 말과 낙타의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예이다.

말의 진화는 진화론에서 가장 유명한 예들 중에 하나였다. 몸체가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점점 커졌으며, 발굽은 네 개에서 점점 줄어 현대와 같이 한 개로 되었다는 말의 진화 과정은 진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였다. 원래 진화 자체가 우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의 진화 예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도록 배열을 하여 그 그림을 보는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1870년대 후반에 고생물학자 마-쉬(Othniel C. Marsh)에 의해 만들어 진 이 말 진화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 되어 왔다. 그 화석들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북미와 유럽에서 각각 발견 되었고, 발굽의 수가 4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갈비뼈의 수는 18쌍에서 16쌍으로 다시 18쌍으로 줄었다 다시 늘었으며, 조상으로 주장되는 화석이 후손들과 같은 지층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런 당황스러운 문제점들 때문에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대표적인 진화 전시물인 말 진화 과정은 일반인들이 볼 수 없도록 감추어버렸다(Milner, Encyclopedia of Evolution, 1993).

이렇게 부적당한 진화의 예가 되어 말이 박물관과 교과서에서 빠져 나가자 진화론자들은 말 대신에 낙타를 등장 시켰다. 이 그림은 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 (Biggs, A. et al. Biology: The Dynamics of Life, Glencoe/McGraw Hill, New York, 2006.)에 실려 있는 것이다. 그림의 설명은 “낙타가 어떻게 진화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화석을 사용하였다”라고 마치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낙타의 진화 과정에 붙여 진 연대나 그림은 얼마 되지 않은 화석 자료에 진화론의 믿음을 결합하여 창조(!)해 낸 것이다. 진화 과정에 있는 낙타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줄무늬나 등에 있는 혹(hump)은 화석 기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그림은 현재의 낙타를 목표로 진화론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 천만 년의 연대는 측정된 것이 아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을 연대측정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이다. (연대측정을 하면 수 천만 년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고, 이론적으로 10만년 이상 된

Table 15.1 Camel Evolution

| 연 대             | 6500<br>만년 전                                                                      | 5400<br>만년 전                                                                      | 3300<br>만년 전                                                                      | 2300<br>만년 전                                                                      | 현 재                                                                               |
|-----------------|-----------------------------------------------------------------------------------|-----------------------------------------------------------------------------------|-----------------------------------------------------------------------------------|-----------------------------------------------------------------------------------|-----------------------------------------------------------------------------------|
| Organism        |  |  |  |  |  |
| Skull and teeth |                                                                                   |  |  |  |  |
| Limb bones      |                                                                                   |  |  |  |  |

생물체에는 방사성 탄소가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자들은 크고 작은 낙타 화석들이 발견 된 북미주에서 낙타가 진화 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크고 작은 낙타 화석들은 현대 낙타의 조상들이 아니다. 크기가 작다고 해서 진화가 덜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등에 혹이 두 개인 쌍봉 낙타, 혹이 하나인 단봉 낙타 뿐 아니라 이것들보다 작고 혹이 없는 라마(야마), 구아나코, 알파카, 비큐냐 등도 낙타들이다. 방주에서 나온 한 쌍의 낙타가 그들의 조상이다. 크기 차이와 다양한 외양은 진화가 아니라 변이에 의해 가능한데 이들은 서로 교배가 될 수 있는 한 종류인 것이다. 모든 화석 증거들은, 종류대로 창조 되었고, 종류대로 방주에 뒀으며, 종류대로 번성하다가 점점 악화되는 환경에서 한 종류씩 멸종하고 있다는 설명을 지지하고 있다. .

진화론자들은 “말 대신 낙타”를 제시 하였다. 낙타가 사라지면 다음에는 무엇을 잡을까? 창조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히브리서 11:3, 6).



최우성 박사  
생리학



## 창조과학 탐사여행

5월에 들어서며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본격적으로 바쁘게 이루어졌습니다. 기간도 3일의 단기간부터 1주일의 장기간까지, 한국어권과 영어권 등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성안교회



## 안산 동산교회

지난 5월 10-16일 안산 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 탐사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씩 탐사여행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탐사여행입니다. 53명이 참석하여 버스가 가득 찼습니다. 9월에 다섯 번째 탐사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2014년 1월 신년 부흥회 기간에 이재만 부회장이 나흘간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 성남 성안교회

지난 5월 17-23일 성남 성안교회(담임목사 계강일) 탐사여행이 진행되었습니다. 계강일 목사님께서 1년 전인 지난 5월 국제가정교회 이사회 탐사여행에 참석하신 후 본교회 탐사여행을 바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반은 성인, 나머지 반은 중고등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른이나 학생이나 참석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증거들을 확인하는 귀한 간증을 주셨습니다. 성남 성안교회에서는 오는 11월 21-24일 이제만 부회장의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 수원노회 수기시찰 목회자

지난 5월 27-30일 장로회 합동 수원노회 수기시찰 목사님들께서 탐사여행에 참석하셨습니다. 1년 전 국제가정교회 이사회 탐사여행에 참석하시고 수기시찰 목사님들 탐사

안산동산교회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시중 진지하고,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탐사 여행을 통해 유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들 노회 단위로 탐사여행을 오실 것을 문의하기도 하셨습니다. 성지순례보다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 시애틀 형제교회

지난 6월 3-6일 시애틀 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에서 탐사여행에 참석하셨습니다. 2005년 이래로 매년 1, 2회에 탐사여행을 참석하는 형제교회는 올해도 탐사여행을 통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탐사여행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세대에게 성경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도 하고 힘든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이 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구임을 확인했습니다.

## ANC 온누리교회 KM & EM 가족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는 지난 메모리얼 연휴 기간(5월 25-27일) 가족 단



수원 수기시찰



시애틀 형제교회

위로 탐사여행을 진행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영어로 진행하는 버스(김선욱 박사 인도)로 이동하고 부모들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버스(최우성 박사 인도)에 올랐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오랫동안 3일간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의미 뿐 아니라 창조과학을 통해 함께 신앙의 토대를 다지게 되는 뜻깊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 **KM 세미나 (이재만, 최우성 인도)**

5/12-6/2 주님의영광교회(매 주일, 담임목사 신승훈), CA

6월 8일 순회선교단 미주지부, CA

6월 9일 빌라델비아교회(담임목사 임승호), CA

#### **EM 세미나 (김선욱 박사 인도)**

5/24 남가주 해오름교회(담임목사 송주한), CA

5/31-6/2 덴버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동욱), CO

ANC 은누리교회





## 달 자기장의 신비

달의 자기장이 강해지고 약해진다는 이야기는 행성을 연구하는 하는 학자들에게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진화론적 자기장 모델에서 달은 너무 작아서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는 만큼 오랫동안 자기장을 유지할 수 없고 그만큼 강하지도 않다. 진화론적 과학자들은 짧은 연대를 보여주는 달 자기장의 모습과 수십억 년이라는 진화론 연대를 함께 설명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한다.

최근 달에 대한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이런 시도 결과 한 연구팀이 한가지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그것역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다음은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라는 과학저널에서 이 자기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췌한 내용이다.

- 오늘날 달의 자기장은 매우 약하다.
  - 아폴로(Apollo)에 의해 수집된 달의 암석에는 자성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과거 언젠가 오늘날 지구의 자기장의 크기만큼 강했던 적이 있었다는 기록을 보여준다.
  - 행성의 자기장을 설명하는 가장 우세한 진화론적 이론은 핵 근처의 액체가 서로 다르게 회전하여 생겨나는 다이나모(dynamo)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이나모는 수백만 년이면 마모되어 사라지기 때문에 진화론적 연대를 설명할 수 없다.
- 연구팀은 달 자기장과 관련해 세 가지 모델을 고려했다. 첫째로, 다이나모가 너무 짧은 기간 내에 약해지기 때문에 액체 다이나모를 고려에서 배제했다. 두 번째 모델은 달에 큰 충돌이 있어서 내부물질이 액체와 같은 운동을 하도록 유도했다. 마치 이것은 점점 약해져 가는 발전소에 큰 돌을 던져서 발전기를 살려낸다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이다. 어떻게든 자기장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운석충돌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은 만년 이상 지속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오래된 지구의 연대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없다.

연구팀은 세 번째 모델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았지만, 이것 역시 답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 그들은 달의 회전축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었을 것이라는 세차운동(precession)이론을 첫 번째 모델에 추가했다. 세차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다이나모는 실제 자연에서 증명된 것이 아닐 뿐더러, 이론상 자기장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생각해진 것이지만 강한 자기장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모델의 높은 원시강도(paleointensities)는 여전히 큰 난제이다.” 라고 연구팀은 저널에 기록했다. 사실 “큰 난제”라는 것도 잘못된 말이다. “불가능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

수십억 년의 연대는 실로 난제투성이다. 진화론적 천문학자들은 자기장의 딜레마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물리학은 이 문제에 대해 명료하다. 마찰력은 운석 충돌이 있었든지 세차운동이 있었든지 다이나모의 움직임을 결국 늦췄을 것이고, 수십억 년의 연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달의 자기장은 분명히 짧은 연대를 보여준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수십억 년의 시간 개념만 버린다면 모든 사실이 이해되고 진화론자들에게 있는 “큰 난제”는 사라질 것이다.

왜 달의 암석에 한때 지구만큼 강했던 그 자성이 남겨져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성을 지니는 달을 수천 년 전에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단지 짧은 시간이었기에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성경의 내용대로 달의 자기장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Brian Thomas, ICR Science Writer / 번역: 조희천

#### 5쪽에서 이어지는 글

사를 말한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믿음은 그 뒤에 이어지는 창조역사와 그 이후의 기록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믿음을 요구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1장 1절은 믿지만 다음 내용 중에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도 있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1장 1절에 대한 바른 의미를 모르는 데서 나온 자세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확실히 와 닿지 않거나, 창조자를 배제하고 자기 혼자 깨달아 알려는 사람들이 한 말에 더 신뢰를 두었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생물들이 수십억 년 동안 진화와 멸종이 반복되었다는 진화역사가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다.

성경은 이 세 차원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초월하신 하나님과 이 세 가지 안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형상인 인간과 주고받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그 창조 주간을 보며 그분의 사랑도 느껴보자.

이재만 / 창조과학선교회 부회장



## 안산동산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

5/10-16 / 2013

창조과학에 잘 왔다. 한마디 외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저에게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 뜻이라 믿습니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철

이번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참석하게 인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 동안 마음으로만 믿어와 연약한 믿음 가운데 확신과 산 증거를 보고 믿음이 더욱 확고해 짐을 느낍니다. 너무나도 귀하신 선교사님의 사역에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 받는 선교사님과 창조과학 선교회가 되시길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 오한경

막연한 지식으로 갖고 있었던 진화론의 허구성을 깨우칠 수 있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박경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 김선택

3대 캐년 속에 하나님의 심판 모습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첫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천국 소유케 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타내는 삶 살겠어요. - 황영분

하나님 계획에 필요한 나? 나의 계획에 필요한 하나님?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시는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자와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제 안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 계획에 필요한 남주로 살아가길 원하며 그 계획과 뜻에 순종하는 남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재만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 이남주, 이유림

말씀으로만 알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노아홍수의 역사를 막연하게 믿고 있다가 창조과학 탐사에 참여 하여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보고 듣고 배워 확신을 심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기서 가진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 주위 사람들과 자녀들에 전하여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전도에 힘 쓰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 갑니다. - 이인재

탐사여행 동안 설명해 주신 성경 말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행복하세요. - 임명호

생각 속의 미국은 별로라고 생각 합니다. 3대 캐년을 보면서 창조, 홍수, 현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 박춘자

처음이 좋았더라!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갑니다. - 이영옥

창조과학 탐사를 통하여 천지 창조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마음으로 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 이명은

‘스마트 폰’과 ‘인터넷 강국’이라는 두 가지로 인해 한국의 젊은 세대는 진실과 사실 보다는 흥미와 거짓과 편견을 더 좋아하고 마음을 돌아 볼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또 느낀 것을 한국에 돌아가 증거 해야 하는데 성경을 멀리하는 젊은이들에게 제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창조 과학 탐사를 와서 잠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여 구원받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기꺼이 힘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영

창조과학 탐사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 왔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 이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일들을 겪는바 이의 근본은 성경이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이 내용을 교육하여 희망의 세상을 열도록 하겠다. - 나병철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창조론이 과학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갑니다. 학교에서만 교육받는 진화론이 허구임을 알게 된것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양형수

● 편집되지 않은 간증은 Home page([www.hisark.com](http://www.hisark.com))의 “ACT 간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3년

7/10 YM Diaspora (이재만), CA  
 7/11-13 빙하시대 탐사여행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213-238-5791, 이주상), 이재만  
 7/15-17 창조과학 탐사여행 (16차 유학생, 신학생 213-381-1390), 이재만  
 7/18-21 창조과학 탐사여행 (동산고등학교 213-381-1390), 이재만  
 7/23-25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 아시아 선교사), 이재만

7/29-8/3 빙하시대 탐사여행 (부산 영도팀), 이재만  
 8/4-8/8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이재만  
 8/5-7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브레이크) E.M. 김선욱  
 8/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나성 순복음교회) E.M. 김선욱  
 8/8-11 창조과학 탐사여행 (YM Diaspora) 이재만  
 8/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남침례교 목회자 자녀) E.M. 김선욱  
 8/12-18 창조과학 탐사여행 (서울드림교회) 이재만  
 8/19-25 창조과학 탐사여행 (기독교미래연구소), 이재만  
 8/20-23 Toronto KOSTA, Canada, 최우성  
 8/26-29 창조과학 탐사여행 (Worship Leader), 이재만

8/31-9/2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EM), 김선욱  
 9/2-4 창조과학 탐사여행 (얼바인 온누리교회), 이재만  
 9/9-11 창조과학 탐사여행 (YWAM), 이재만  
 9/10-11/12 시카고 노스필드장로교회 (제14기 중부창조과학학교, 630-400-6114), IL  
 9/11-11/13 시카고 한미장로교회 (제15기 중부창조과학학교, 630-400-6114), IL  
 9/12 남가주주님의교회(이재만)  
 9/13-12/13 시카고 뉴라이프교회(10주 금요 창조과학세미나 이동용, 600-400-6114), IL  
 9/13-19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9/19 남가주주님의교회(최우성)  
 9/23-28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인), 이재만  
 9/26 남가주주님의교회(최우성)  
 9/30-10/3 창조과학 탐사여행 (뉴저지 초대 교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213-381-1390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